

‘해외곡물 선물 및 외환시장 헷지전략’ 교육 실시



한국사료협회와 삼성선물이 공동으로 국제 곡물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협회는 지난 4월 12~13일 이틀에 걸쳐 지하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실무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해외곡물 선물 및 외환시장 헷지전략’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에 나선 삼성선물 유태원 팀장은 “곡물가격 변동 리스크 관리는 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격 변동 리

스크를 최소화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곡물가격 변동에 따른 회사 손익의 편차를 줄이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글로벌 곡물시장 수급 전망에서 임호상 삼성선물 차장은 “옥수수의 경우 생산 증가에도 10/11년도 기말재고 감소 영향 속에 올해 역시 타이트한 수급 상황은 이어질 것”이라며, 또한 “대두 역시 미국, 브라질, 중국 등의 생산량 감소 움직임 속에 기말재고율이 다시 감소할 것으로 타이트한 수급상황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